

# 축제같은 시험... 군중병 교리대회

## 4일, 9사단 호국백마사·비룡사 동시 개최

제1회 전국 군중병 불교교리경시대회가 8월 4일 9사단 호국 백마사(주지 현조 이동경)와 25사단 호국 비룡사(주지 지용 구운회)에서 동시 개최됐다.

군포교 현장의 사기진작과 군중병들의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은정불교문화재단(이사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이 마련한 이날 불교교리경시대회는 9사단과 25사단 예하부대 군중병 64명이 참가했다. 이번 불교교리경시대회는 각 부대 군중병을 대상으로 신자 파악 및 포교요령, 개인상담 등을 교육하는 군중 집체교육 기간 중 실시키 위해 조계종 군중특별교구(교구장 자광)의 추천을 받아 두 사단에서 시범 실시됐다.

시험문항은 은정불교문화재단 교리경시대회 운영위에서 맡아 조계종출판사 <청소년불교입문>를 기반으로 기초교리 등 불교상식 전반에 걸쳐 객관식 40문제, 주관식 4문제, 서술형 1문제 등 총 45문항으로 출제됐다.

이웃종교계의 전국구국성회, 찬



8월 4일 호국백마사에서 열린 제1회 군중병 불교교리경시대회에서 군중병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양회 등과 같은 전국적인 행사가 부족한 군포교 현장에서 이번 군중병 불교교리경시대회는 군내 불교계 대규모 행사로 확대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휴가 중 복귀해 시험에 응시한 9사단 보수대 조용연 상병은 "매주 토요일 9사단 군중병들끼리 여는

올바른 교리를 통해 불교교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시험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9사단 통신대 장인성 일병도 "이번 시험을 준비하며 불교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 군중병 활동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응시 소감을 말했다.

은정불교문화재단 측은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상인 조계종 총무원장상(1명)과 최우수상인 포교위원장상(2명), 우수상인 군중교구장상(5명)에는 각각 상금과 사단장 포상휴가가 주어지며 시상식은 10월 23일 개최된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 은해사 영도학원 명칭 변경

경북 영천시의 종립 선화여고 법인인 영도학원이 동곡학원으로 명칭 변경된다.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8월 10일 경내 해안에서 학교법인 영도학원을 동곡학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재단 초대 이사회를 개최했다. 학교법인 동곡재단은 이날 초대 이사장에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을 추대했다. 이사회에서는 학교 활성화 방안과 종립학교로서의 운영 기본 방향 등도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다.

초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동곡재단의 출범에 대한 소감으로 "은해사는 참다운 인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재양성을 목표로 동곡재단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받은 관심과 사랑을 되돌려 주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동곡재단은 9월 9일 영천시 선화여고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각계 귀빈을 초청해, 동곡재단법인 이사장 취임식을 갖고 백년 교육대계의 첫발을 내딛는다.

조동섭 기자

# 100자 뉴스

## 경주 위덕대 통리원장배 자성동이 풋살대회'

진각종(통리원장 혜정 정사)은 8월 11~12일 경주 위덕대에서 제5회 통리원장배 자성동이(어린이법회)에 참가하는 초등학생 풋살대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리그전으로 16강을 선별하고 8강전은 대전추첨을 통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대회까지 성적우위의 시상으로 인한 지나친 승부욕이 수차례 지적됨에 따라 올해에는 개최 취지인 화합과 단합을 위해 매너플레이상, 응원상, 단합상, 봉사상, 예절상, 질서상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행사에서는 풋살대회 외에도 종단 스승과 감독이 함께 하는 족구대회, 저학년 자성동이 친선경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선서화·도자기 전시회



경산 불광사 경북불교대학(학장 돈관)은 8월 4일 교내에서 불광불교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생활도자기와 선서화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에는 故 동곡당 일타 스님과 영천 죽림사 주지 법의

스님의 선서화 작품과 함께 문경 도광요(김경선 선생)의 생활 도자기, 대승사 외발우 등 30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됐다.

학장 돈관 스님은 "불광사 불교종합복지관 증축 불사에 마음을 모으는 의미에서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면서 "불사는 끝이 없지만 하루빨리 증축해 사화, 문화, 복지, 포교 사업을 적극 펼쳐겠다"고 밝혔다. 전시회는 24일까지 계속된다.

손범천 대구지사장

## 옥천불교사암연합회 군정발전기원법회 봉행



옥천군불교사암연합회(회장 장원, 용암사 주지)는 옥천군 사암 주지 스님들과 김영만 옥천군수 등 옥천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정발전기원법회를 봉행했다.

기원법회 후 옥천군불교사암연합회는 옥천군에 △유동 축제 관련 군 예산 지원 △영구 대사 추모제 개선방향 △옥천군청 불자회 창립 지원 등의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조동섭 기자

## 중국 소림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중국 선종 총본산인 소림사(少林寺)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8월 1일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제34차 회의에서 중국이 신청한 허난성(河南省) 평형시(登封市) 송산(嵩山) 일대 역사기념물(Historic monuments of Mount Songshan)의 등재를 확정했다.

'송산 일대 역사기념물'은 공푸로 유명한 소림사를 비롯해 제당인 중약묘(中岳廟)와 서원인 송양서원(嵩陽書院) 등 11개 고건축물로 구성됐다.

한편,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로 구성된 '한국의 역사마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로써 한국은 10번째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재건 법안 통과 예정 인도 나란다 대학

인류 역사상 '최대·최고 대학'인 인도 나란다(Nalanda) 대학이 옛 상아탑의 영광을 다시 꽃피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월 3일 인도 의회가 나란다 대학의 재건을 위해 외국 협력자본 참여를 허가하는 법안을 8월 첫째 주 중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인도 북서부 비하르주(州)에 있는 나란다 대학은 5세기 굽타왕조 쿠마라굽타 1세에 의해 건립돼 700년 넘게 융성했다. 대학 부지는 반경 16km에 달했고 중국 당나라 현장법사(602~664)와 신라 혜초 스님(704~787)도 불경을 공부하는 등 하지만 1193년 투르크족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뒤 방치됐다.

전성기에는 세계 93개국에서 온 2000명의 교수와 1만여 학생을 수용했다.

노덕현 기자

# "자비실천 위해 손 잡았어요"

## 東大 참사람봉사단·승가원 업무제휴 협약

동국대 참사람봉사단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 나눔문화 활성화와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을 위해 손을 잡았다. 동국대 참사람봉사단(단장 이준서)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법인 사무국장 동욱)은 7월 29일 서울 안암동 승가원 강당에서 업무제휴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법인사무국장 동욱 스님(오른쪽)과 이준서 동국대 참사람봉사단장

이날 협약으로 동국대와 승가원은 참사람봉사단 중심의 정기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문화 활성화와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행사에서 승가원 법인사무국장 동욱 스님과 동국대 참사람봉사단 이준서 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

립대인 동국대와 승가원의 교류가 더욱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국대는 이날 협약에 앞서 5월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승가원 산하 기관에서 장애인 정서지원을 위한 활동 및 환경정리 등 자원봉사활동을 해왔다.

조동섭 기자

# 마인드 컨트롤이 성패 좌우

## 수능 -100일 봉은사 입시특강

2011학년도 수능능력시험이 어느덧 100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불교계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대입수능능력시험을 대비해 입시특강이 진행 중이다. 서울 봉은사는 '수험생 자녀와 함께 가는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마련했다.

8월 4일은 이석록 메가스터디 입시평가연구소장을 초청해 '2011학년도 대입수능 경향 분석'에 대해 강연했다.

이석록 소장은 대학입시 전형 유형의 다양화를 강조하며, 자신이 유리한 전형을 선택해 전략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이 소장은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은 사실기관의 무책임한 대학입시 상담을 피해야 한다.

대신 자녀가 갈 수 있는 대학 5곳을 선정해, 그 곳의 입시요건을 철저히 분석하라. 자료를 토대로 해당 학교 입학처에 찾아가 입학 관계자와 많은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방법을 자녀가 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어떻게 남은 기간을 보내야 하는지 구체화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이석록 소장은 "이번 수능 시험에서 언어·수리영역은 전년도와 평이하고, 외국어 영역이 다소 어렵게 출제 될 전망"이라며 "배짱 있고 낙천적인 힘이 결국 시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영산불교에서 자신있게 내놓은 불멸(不滅)의 사자후

## 세계 불교사에 던져진 매머드급 허리케인 2500년 불교 교학사를 다시 쓴다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16쇄 | 371면 | 25,000원, 385면 | 25,000원 - 영어판 · 일어판 近刊

### 대행서점 종교서적 부문 6개월 연속 베스트 1위!

30년간 치열한 영업수행을 통해 깊은 산내 속에서 만난 나의 스승 석가모니부처님! 아난이 2500년을 지나 부처님을 진전하고 삼매에서 들은 진실한 이야기. "깨달음(경성)은 진정한 삼매를 위한 시작에 불과했다. 무수한 삼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삼매인 대적정삼매에 들었을 때 비로소 육도의 지옥, 아귀, 수라, 하늘세계와 해탈 세계인 극락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보았다. 수행 중에 보는 지옥과 극락은 모두 환영이지만 오직 붓다의 경지에서만은 지옥과 극락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3년을 구족하지 못한다면 부타라고 할 수 없다."

### 영산불교사상과 본문묘법연화경

381면 | 25,000원

보정정도와 도경된 다보탑 조성을 기념한 다보여래부처님 기도법 안내서. 경전중의 경전인 묘법연화경 본문법품을 소개하고 불세존과의 일문일답을 소개한다. 이 책을 통해 석가모니부처님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다보탑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

### 관음태교, 관음태교에서 천도까지

187면 | 10,000원, 311면 | 15,000원

행복한 삶의 시작과 끝을 결정지어 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고의 보서(寶書). 삼매속 관세음보살님께서 직접 부촉하신 '관음태교법'을 소개한 예비 부모의 필독서. 국가와 가정의 미래를 걱정하는 선남자 선여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한다.

### 영혼체 윤회론

158면 | 10,000원

### 내 안의 '진실한 나'를 찾았다!

깊고 깊은 미개척의 영적 세계. 비밀의 장에서 건네온 우리 자신의 비밀. 겉껍이 겹쳐져 있는 인간의 4개 영체를 소개하고 오랜 비밀이었던 영혼체설을 정립한다. 자성(自性)은 만물의 근원일 뿐 비인격적 본질을 '진짜 나'라고 할 수 없다! 2000년 넘게 왜곡되어 해석된 무아설(無我說)을 바로잡고 삼법인(三法印)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이 시대 최고의 논서.

### 신불교사상의 실체를 파헤친다

42면 | 소개책자

종교계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신불교 사상의 등장을 전반적으로 소개한다.

### 칙천무후

238면 | 15,000원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 칙천무후. 불세존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통을 이은 가섭존자의 후신이자 동시에 현자사 광명만덕 큰스님의 전신! 유교사상에 의해 왜곡된 칙천무후에 대한 불교사적인 재평가

### 불교사에 드러난 석가세존의 실존문제연구(近刊)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석가모니부처님의 위상과 실존문제를 파고든다.

■ 붓다의 메시지 존평 506면 |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에 대한 불교 내외의 여러 학자들의 평론.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요해 269면 | 15,000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의 사상적 측면만을 별도로 묶은 요약서.

■ 108 대참회문

108배와 함께하는 불자들의 참회수행 지침서

■ 영산불교의 법세계 80면 | 10,000원

두분 큰스님께서 영산불교를 창종하신 이유와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대성을 펴려.

■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489면 | 15,000원

수행적 측면에서 바라본 영산불교의 법세계

■ 비교종교학 537면 | 25,000원

영산불교의 법세계를 소개하고 이와 더불어 세계 7대 종교를 되짚어 본다.

■ 법문집 I III 631면 | 15,000원 540면/20,000원, 648면/20,000원 - IV권 近刊

(21세기 붓다의 메시지)에서 다하지 못했던 이야기. 5년에 걸친 현장법문의 생생한 기록

■ 신불교학개론(近刊)

영산불교 사상연구소에서 다시 쓰는 불교학 교리 개론서.

■ 만화로 보는 영산불교의 사상 - 행복으로 가는길

쉽게 접하는 불멸의 정. 만화라는 매체를 통한 불교 사상의 이해